

# 무주 한풍루 국가 보물 승격 재조명

### 군,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학술대회 개최...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

무주군은 오는 26일 오후 3시 20분부터 전통생활문화체험관(무주읍 최북로15)에서 무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한풍루 학술대회 라이브’)로 검색 또는 <https://youtu.be/iHBIGWxPGYo> 접속 후 시청)로도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인 ‘무주 한풍루’를 국가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한다.

학술대회는 안선호 교수(원광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동희 교수(전 전주역사박물관장)가 ‘한풍루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신웅주 교수(조선대학교)가 ‘한풍루의 건축 특성’, 김진돈 전라극석문연구회 회장이 ‘한풍루와 무주의 문화’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의 시간에는 전주대학교 이재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무주 한풍루의 문화재 가치 제고’라는 주제의 토론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성미 교수(원광대학교)와 신치후 교수(국가한옥센터장), 정훈 교수(군산대학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한풍루는 조선전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모습을 기록으로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자 임진왜란 당시의 소실은 물론, 중수와 정비 과정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 수탈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군민



무주군은 오는 26일 오후 3시 20분부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무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무주 한풍루 모습)

들이 당당히 지켜낸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술대회가 한풍루에 대한 역사, 문화, 건축,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보물로서 한풍루의 가치를 당당히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 한풍루(1465년 건립 추정, 연면적 154.9㎡ 2층 누각으로 지붕이 이익공(二翼工)형태)는 조선시대 호남의 삼한(三寒) 무주 한풍루(寒風樓), 남원 광한루(廣寒樓), 전주 한벽루(寒碧樓) 중 으뜸으로 꼽혔으며 1502년 왜군의 방화로 소실됐다가 1599년 복원돼 1783년까지 보수, 중수과정을 거치고 1910년 이후에는 불교 포교당과 무주 보통학교 공작실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1936년에는 영동 양산면 가곡리 금강변으로 옮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으며 1960년대에 비로소 한풍루복구추진위원회가 결성돼 1971년 무주군 무주읍 지남공원 내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전 과정에서 원부재를 최대한 활용해 역사성과 건축성, 학술성이 뛰어난 누정 건축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주 한풍루’ 현관은 조선시대 명필 한호(석봉 보은처리 후 다시 수장고에 보관 중)선생과 현대 송성용(강암)선생이 쓴 것이 있으며, 현재 한풍루에는 강암 선생(1913~1999)의 작품(190×73cm)과 2002년 제작된 석봉 선생의 모사품이 걸려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3월 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 장수군, 우선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 61명 대상

장수군은 우선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61명에 대해 오는 3월 4일부터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1차 우선접종 대상 시설은 총 4곳으로, 장수보건복지센터는 의료원에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방문 접종하며 나머지 요양시설 3곳은 관내 의료기관 내원접종으로 진행한다.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총 2회 접종을 해야 하며, 오는 5월 중에 2회차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접종 후에는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7일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고위험 의료

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및 소방서 119 구급대, 의료원 역학조사, 검체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일반 군민은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예방접종센터(한누리전당 산디관) 및 위탁의료기관 8개소에 7월부터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백신 예방 접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 운영

진안군은 24일 주요 도로인 국도 26호선 주변도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날’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0년 12월~2021년 3월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4일을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며 주요도로를 선정해 단속반(1개 반 3명)이 현장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키메라로 촬영하고 판독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추출해 단속한다.

이날 실시한 집중단속 결과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토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단속의 효과 높이기 오는 3월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민간감시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환경 지역인 진안군은 2020년도 년평균 미세먼지 지수는 미세먼지(PM-10) 31㎍/㎥, 초미세먼지(PM-2.5) 16㎍/㎥로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으로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도로노면 부유먼지, 다음으로 경유차량 배출가스 순으로 나타났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진안군은 오는 3월 5일까지 ‘2021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군은 지난 15일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3월부터 진안군 평생학습관을 재 개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으며 프로그램 별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전화(063-430-2518), 군청 행정지원과 방문, 홈페이지([www.jinan.go.kr](http://www.jinan.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상제작반 등 14개이며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프로

그램의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수강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특히 주말, 주중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어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도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진안군은 평생학습도시로 2002년 지정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 군민 평생학습 보장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공감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받기 위해 평생교육을 고용과 복지 부분과 함께 정책 영역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 모범자문위원 표창장 수여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인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회장 최경호)는 민주평통 의정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24일 진안군청에서 2020년 모범자문위원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홍종식 부의장과 진안군협의회장, 대행기관장인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모범자문위원 수상에는 ▲의정(대통령)상 김진곤 청년분과위원장 ▲전라북도지사상 김희중 기획홍보분과위원장, 한효립 자문위원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상 최준 자문위원 등 총 4명이 표창을 받았다.

전북지역회의 홍종식 부의장은 수상자를 축하하며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업분야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 나서

무주군은 농업분야의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팜메이트(행정+농가)를 구성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5개 팀 27명의 팜메이트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농업기술 등을 공유하며 소득향상과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결연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무원들만 참석했다.

특화품목 활동은 공통과목 학습과 품목별 현장실습으로 펼쳐지며 공통과목은 ‘사과’, ‘벼’ 품목에 대한 자체 멘토(직원)강의로 진행한다. 수강 대상은 근무경력 5년 미만의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이다.

팜메이트 활동은 멘토·멘티 이론학습과 품목별 농가메이트 과원에서 현장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과와 포도, 천마, 토마토, 수박 등 특화품목별로 4~5명이 한 팀을 이뤄 수업을 이어간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 대책 추진

### 산불 취약지 주변 민속놀이·무속행위·논·밭두렁 태우기 등 집중 단속

장수군은 오는 26일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무속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해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정월대보름 당일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읍면순찰 4개조(14명), 산불상황실(3명), 진화대 8개조(35명)와 전 읍·면 공무원 3분의 1을 투입해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통한 산불 취약지 주변 민속놀이, 무속행위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재 장수군은 6월 10일까지 불철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2021년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감시원은 이 기간 동안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와 농산부산물 파쇄 지원, 산불진화 및 뒷받침,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산 연접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므로 시민 모두가 작은 불씨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개개인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